

아침세평

박병훈

특목브레인심리발달연구소 대표



얼마 전 퇴근 길에 길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했다. 그 길고양이가 사뿐사뿐 길을 걷고 있었다. 그 때까지만 하더라도 고양이는 매우 평온했다. 잠시 후 사단이 벌어졌다. 어떤 젊은 사람이 두 마리의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던 중 그 고양이와 길에서 조우하게 된 때문이다. 고양이는 반려견 두 마리를 발견한 순간 등과 털을 곧추 세운 채 적의를 드러내며 공격 태세를 갖추고, 고양이는 날카로운 이를 반려견에게 보이며 척추를 활처럼 휘더니 급세 자신의 털을 세워 몸을 부풀리기 시작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등을 활처럼 휘고 털을 곧추 세우며 적대감을 드러내는 고양이가 같은 내담자를 자주 만난다. 그 아이들은 부모나 교사, 이웃으로부터 따뜻하고 다정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위로와 지지, 격려의 말은 삶의 메뉴에 없는 단어이다. 비난, 협박, 회유, 비교, 저주의 말이 그들의 삶에 스며있다. 그러니 공감받을 바라는 것은 연감생심이다. 얼마 전 중학교 3학년 남자 청소년이 상담을 하면서 자기 엄마에 대한 분노를 토해내기 시작했다. 엄마 차를 타자마자 '내가 너같은 아이를 나서 이 꼴로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내가 그 청소년에게 '속

말이 보이게 하는 방법

상하고 화가 많이 나겠다'고 공감을 해줬다. 놀랄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다. 그 청소년은 '나도 엄마 밑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이 아니다'고 했다. 성인들이 모임에 가면 두 종류의 모임을 발견할 수 있다. 한 모임은 모이자마자 상대를 정찬하고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 다른 종류의 모임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헐담하고 서로의 단점을 깨면서 은근히 유머를 빌려 상대를 공격한다. 우리는 품격을 잃었다. 말의 품격을 잃었다. 사람으로서의 인격을 상실해 가고 있다. 늦가을 동면을 준비하기 위해 독이 가득한 독사처럼 사람들을 향한 서슬퍼런 말들이 거리를 서성이고 있다. 지난 3년은 외계인의 침공을 받은 세월 같았다. 고위공직자들과 관료들의 생각과 논리는 해괴했다. 평가공기와 위협, 차별과 배제, 거짓말, 자만, 특권의식, 분노와 남탓, 위선으로 점철됐다. 자신과 생각이 약간만 다르면 반국가세력이라고 공격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과 그들의 가족, 산업재해로 인한 희생자, 소수자들의 목소리에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들의 인간성에 절망했다. 한층의 재만도 못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박절하지 못한 아내를 지키기 위해 정당한 국민들의 요구에는 거부권 남용으로 응답했다.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걱정해 분출된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배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비과학적이라는 한 마디로 무찔렀다. 그러면서도 의료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수많은 갈등과

계량할 수 없는 피해에는 귀를 닫고 과학적 설명은 하지 못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게 하려면 이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한다. 배우자에게 수만번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생일 한번 기억해주지 않고 선물 하나 주지 않는다면 상대는 사랑을 느낄 수 없다. 만약 중독자들은 소리가 보인다고 한다. 소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것이다. 그럼에도 소리를 본다고 한다. 과연 이런 사람들은 신인가? 외계인인가? 이제 들리는 말이 아니라 보이게 말하자. 말을 보이게 하려면 내 얘기를 멈추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타인의 이야기를 무겁고 깊이 받아들여야 한다. 타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 한다. 자신의 말을 행동과 일치시켜야 한다. 타인의 심리적 경계와 양심의 자유를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내밀한 자기의 약점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약점이 드러날 경우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사실은 정반대이다. 안데르센의 '별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가 떠오른다. 어른들은 별거벗은 임금님을 보고도 별거벗지 않았다고 믿으려 했다. 사기꾼인 재봉사가 어리석은 사람이나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만 임금님의 옷을 보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 때 동심을 가진 어린 아이만 임금님의 벗은 모습을 그대로 얘기할 수 있었다. 남이 하는 말을 비판없이 그대로 읊어 대는 일, 무엇을 지키려는 것인가?

기고

김희철

광주 서부소방서장



2025년의 시작, 새해 첫날이 엇그제인 것 같은데 벌써 6월의 하순이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됐고, 올해도 어김없이 반갑지 않은 여름 손님, '장마'가 찾아왔다. 장마는 6월 중순부터 7월 하순까지 여러 날에 걸쳐 지속적으로 내리는 많은 비 또는 그 시기를 뜻하는 우리의 고유어이다. 장마는 우리 일상에 단비를 주기도 하지만, 집중호우와 태풍 등이 동반돼 각종 재난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매년 장마철이 되면 침수, 산사태, 갑전, 화재 등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장마 기간에는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저지대 침수, 산사태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또한 빗길에 시야가 흐려지고 도로가 미끄러워 교통사고 위험도 더욱 높아지며, 침수로 인한 고립과 갑전 사고, 특히 강풍과 동반된 비바람은 간판, 유리창 등의 파손과 그 낙하물로 인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번 장마는 평년보다 일찍 시작됐고, 올해 초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인한 산사태 및 침수 피해가 더욱 우려되는 가운데, 적극적인 사전 대비와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먼저, 개인의 경우 장마 기간에는 당일의 기상정보와

‘반갑지 않은 여름손님’ 장마맞이

호우·재난 예보를 미리미리 확인하고, 가족 및 주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좋다. 폭우 예보가 있는 날에는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 시에는 하천, 저지대, 지하차도 등 침수 위험지역의 통행을 삼간다. 일반 가정에서는, 습기로 인한 누전 방지를 위해 누전 차단기 점검을 기본으로 한다. 콘센트·멀티탭을 미리 정리 해두고, 외출 시에는 전기 제품과 콘센트의 전원을 가급적 차단하는 것이 안전하다. 콘센트나 전선이 젖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완전히 건조시킨 후 사용해야 한다. 주택에서는 배수구와 하수구가 막히지 않았는지 미리 점검해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저지대에 거주하는 경우나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는 침수에 대비해 모래주머니나 물막이 판 등 임시 방재용품을 미리 준비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차량 운행 시에는 어쩔까. 먼저, 장마가 오기 전에 각자 차량의 타이어, 와이퍼, 배터리 등 주요 부품을 미리 점검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빗길에서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므로 20~50% 감속운행과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조금이라도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나 소규모 교량을 마주할 경우, 절대 무리해서 진입하지 않고 우회해야 한다. 침수가 돼 긴급 대피해야 할 경우에는 신호등, 가로등,

전신주 등 전기시설물에서 멀리 떨어져 이동하고, 즉시 가까운 건물의 2층 이상 높은 곳으로 대피하도록 한다. 대피 시 물의 소용돌이가 있는 곳, 맨홀, 하수도 근처는 추락 및 휩쓸림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긴 막대기로 바닥을 짚어 확인하며 천천히 이동하는 것이 좋다. 침수로 인해 대피가 어렵거나 완전히 고립된 경우에는 무리해 물을 건너지 말고 119에 즉시 신고하고, 최대한 주변의 부유물을 활용해 물 위에 떠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다. 반갑지 않은 여름 손님맞이, 장마와의 길고 긴 싸움이 시작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장마는 약 31일간 지속된다고 한다. 우리 소방에서는 실시간 기상정보 모니터링과 함께 침수 위험지역 순찰 강화, 소방 장비비를 일제 점검하고, 단시간 119 신고전화 폭주에 대비해 신고 접수 모의훈련을 하는 등 장마와 잘 싸워나기 위해 경계 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칠 년 가뭄에는 살아도 석 달 장마에는 못 산다’는 옛말이 있다. 가뭄 때에는 그래도 견딜만 하지만 장마는 그만큼 힘들고 피해가 크다는 것을 뜻한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강수량과 그 형태가 더욱 다양하고 변덕스러워 더욱이 우려스러운 가운데, 우리 모두의 안전 수칙 준수와 침착한 대응으로, 올해 장마는 부디 안전하고 반가운 여름 손님이 돼 주길 바란다.

사설

광주시 ‘대선공약 서울상황실’ 역할 기대

광주시가 ‘대선공약 서울상황실’을 가동한다고 한다. 이는 국민 주권 정부 출범 초기에 광주 대선공약 등 지역 핵심 현안을 국정과제에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또 새 정부 출범 초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에 발맞춘 전략적 조직 재편이기도 하다. 국정 기획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대신해 약 60일 동안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책 방향, 실행 계획을 설계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대선공약 서울상황실’은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채택된 광주시 7대 지역공약, 자치구 5대 공약, 우리 동네 32개 공약 등 지역 주요 현안을 국정과제로 반영하기 위한 전략 거점으로 운영된다. 참고로 광주시 7대 공약은 AI 국가시범도시 조성 추진,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공항 조성 적극 추진, 대한민국 대표 모빌리티도시 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시대 선언, 영산강·광주천 수변 활력 도시 조성사업 적극 추진, 국가 초고자기장 연구인프라 구축, 서남권 메가시티 조성 등이다. ‘대선공약 서울상황실’은 또 국정기획위를 비롯한 중앙정부, 국회 등과 소통하는 대외협력 핵심 창구 역할도 수행한다. 특히 새 정부의 큰 그림이 대략 결정되는 초기 100일을 골든타임으로 정하고 이 기간 국정과제 반영 실무 대응팀을 운영하고 정당·정부와 실시간 정책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을 필두로 정책별로 실장과 공직자, 공공기관장과 임직원 등이 TF 방식의 협업을 통해 중앙정부, 국회 등과 전방위 협력을 펼치며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로 했다. 그동안 광주시는 새 정부 골든타임을 잡기 위해 준비작업을 철저히 해왔다. 강 시장 주재로 실·국장과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한 ‘대선공약 국정과제 전달팀(TF) 회의’를 열고 국정과제 반영 전략을 점검했고 지역 국회 의원과 ‘새 정부 국정과제 대응 및 지역 주요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도 가진 것이다. 대선공약 서울상황실이 광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지역 현안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담아내는 성과를 낼 수 있길 기대한다.

광주·전남 노후주택 많다…대책마련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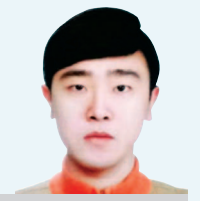
광주·전남지역 공동주택 4채 중 1채가 준공 30년이 넘는 노후주택이라고 한다. 광주는 노후주택 비중이 전체 공동주택(44만7369가구)의 24%(10만7691가구)나 되고 전남도 전체(37만6873가구)의 27%(10만1323가구)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평균 26%(20만9014가구)가 노후주택인 셈으로 이는 최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R114가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K-ap)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K-ap 공동주택 기준은 지난해 10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100세대 이상 관리비 공개 의무가 있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을 말한다. 먼저 광주 자치구를 들여다 보면 북구 노후아파트 비중이 32%(4만4246세대)로 가장 높았다. 이어 남구 29%(1만8446세대), 서구 22%(1만9473세대), 동구 19%(5192세대), 광산구 16%(2만334세대) 순이었다. 전남은 여수시가 42%(3만162세대)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목포시 34%(2만2169세대), 순천시 33%(2만753세대), 광양시 29%(1만6353세대), 화순군 17%(2391세대), 완도군 15%(240세대) 등이었다. 문제는 노후 주택 비중이 해마다 치솟고 있고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이 경우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축소로 이어져 도시 경쟁력 저하까지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광주의 경우 2022년 노후 주택 비중이 16%(41만8333가구 중 6만6977가구)에서 2023년 18%(42만4907가구 중 7만7297가구), 2024년 21%(44만1781가구 중 9만3351가구), 올 6월에는 24%로 뛰었다. 전남은 2022년 18%(34만1507가구 중 5만9049가구)에서 2023년 20%(35만3839가구 중 7만1035가구), 2024년 23%(37만485가구 중 8만4094가구), 올해는 27%나 됐다. 여기에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내년과 2027년에도 신축 아파트 물량이 평년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고 이 기간 노후 아파트는 전국 약 80만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처럼 노후주택 비중은 해마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취재수첩

현명한 광천권역 교통대책 마련을

이산하

지역사회부 차장



교통은 시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다. 쾌적한 교통을 정주 여건의 우선 순위로 둘 정도다. 교통 여건과 관련해 광주 광천권역을 오가는 이들이 벌써 ‘교통난’을 걱정하고 있다. 광주 북구가 ‘더현대 광주’의 건축허가를 조건부 승인했기 때문이다. 많은 지역민들이 염원하던 복합쇼핑몰 착공이 가시

화됐음에도 이 일대를 오가는 이들이 불안해 하는 이유는 하나다. 더현대 광주의 공사 전후로 교통난이 심화할 것이 불보듯 뻔하게 예상되고 있어서다. 광천권역의 차량 통행량은 하루 평균 13만대를 기록 중이다. 만약 공사가 시작된다면 공사 차량의 진·출입과 야구장을 찾는 이들로 인해 교통지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복합쇼핑몰과 인근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끝나면 교통량이 최대 29만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광천권역을 이용 중인 이들은 한숨을 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광천권역으로 출퇴근 중인 한 지인은 출근 시간을 몇

분이나 당겨야 할 지 아직 감이 잡히지 않는다고 하소연한다. 또 다른 임동주민은 복합쇼핑몰 입점으로 정주 여건이 개선됐음에도 도로에 갇혀 있을 상황을 벌써 꾸념하기도 한다. 이에 관한 지자체인 북구는 옛 전남·일신방직 부지 개발에 따른 교통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갖고, 광주시에 22개(교통 관련 17개)의 개선 대책을 건의했다. 광주시에서는 광천사거리 지하차도 개설, 광주전변도로 확장과 주차장·교량 신설 등 9가지 건의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물론 북구가 건의한 내용이 정답일 수는 없다. 정책 방향성, 예산 확보 문제, 시행 가능성 등 다양한 이해관계 때문이다. 그러나 광천권역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는 교통난 해소는 반드시 필요하다. 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한 현명한 교통정책을 마련되길 바란다.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10 경 제 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민 권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는 설 실 370-7060 뉴미디어본부 370-7222 임 원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